

기획시리즈

대학법인,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위기, 체제변화 절실한 이사회

<2>대학법인과 이사회의 위상

흔히들 사립대학의 문제를 논할 때 설립자가 누구냐는 질문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사립대학의 설립자나 학교법인은 대학의 성격과 운영 체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은 늘 활발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 2월 임시부경 사건으로 일각에서 대학의 추경 모습도 거의 사립대학들이며 학교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학교법인이 둘러싸고 있는 셈이다.

모든 사안이 일괄적으로 배울 수는 없거나 대학의 교육적 자유와 재정적립의 문제 미치지 못하는 부도덕하고 파벌적일 경우 학교법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립대학도 그 개념성과 현실성으로 해서 함께 수난을 당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교수수도 직접·간접으로 증조했거나 참여함으로써 비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건전한 대학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학교법인의 부경행위는 옳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공헌한 사회의 공로는 모두가 아는 현실로 명백하고 부당하다.

1. 학교법인의 성격과 역할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성격과 내용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도 사립대학 재정의 상당부분이 국·공립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은 차별될 수 없을 것이다.

학교법인은 대학의 설립이 되며 대학의 설립 주체인 이사회의 재산 관리와 더불어 대학 발전의 주체로서 대학관리에 고유한 기능을 갖는다. 다만 대학운영에의 참여와 실제 권한은 대학의 총장을 통해서 표현되고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 법인이 이사회의 이사장이 되고 있는 현실은 대학 총장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사회의 위상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이사회의 임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임 사립학교법인은 대학의 자율이란 명목으로 학교법인의 막대한 권한을 부

여해 놓고 있으며 실제로 모든 내부의 일에 대해 간섭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론도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안병통 하려는 의도의 광범이 제논되되어 나타나 보인다.

우선 학교법인이 재산적 권리를 통하여 대학에 대한 권리의 행사와 더불어 그 권리를 세습할 수 있는 의도의 광범이 제논되되어 나타나 보인다.

특히 대학 설립의 존속의 기치는 재산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이사회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 그 구성원들의 직능을 특성에 의하여 대학이 관장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광범위한 직능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대학에 대한 기여를 유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대학 발전을 위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로부터의 존경과 애정을 근거로 할 권한의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스스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행(이사회 업무 평가)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



이사회와 관련된 인사와 자치위원회 등 한 셋에 모여 있다.

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존속의 기치는 재산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우선 학교법인이 재산적 권리를 통하여 대학에 대한 권리의 행사와 더불어 그 권리를 세습할 수 있는 의도의 광범이 제논되되어 나타나 보인다.

특히 대학 설립의 존속의 기치는 재산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우선 학교법인이 재산적 권리를 통하여 대학에 대한 권리의 행사와 더불어 그 권리를 세습할 수 있는 의도의 광범이 제논되되어 나타나 보인다.

다. 너무나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의 전횡을 장려했고 실정은 사학이 많은 우리의 대학에 비추어 재단의 모순과 갈등의 소지를 주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향상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1908년 일제가 우리나라 사학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을 비롯해서 1963년 최후승 개정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도 그 내용과 목적은 다르지 않다. 사립학교법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 후 17차 개정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 17차 개정이 있을 것이다. 그

수도의 자율권은 공법에서 불과하다. 따라서 개학인 사립학교법에는 헌법상의 대학 자율권 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3.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우리나라의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사학의 빈곤이다. 그것은 사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국립대학의 재원 및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1년의 경우 수수 국고금이 60%에 반하여 사립대학의 경우 0.7%로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1992년 대학교육정책의 자료). 이러한 실정에서 등록금을 매년 20%정도 인상하는 대학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재정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매년 20%정도 등록금 인상을 순전히 학교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이 부담된 것인 학부들이 대학을 그만두는 학생이 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이름 하에 학부모 부담하는 것을 통째로 학교 수입에 포함시켜 대학교육을 받아 학생이나 학부모 부담을 면하게 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는다. 상한선 안으로 놓고 색이 들어가 30년의 군부담을 학부모에게만 그 짐을 지운다면 그것은 대단한 모순인 셈이다.

다만, 국가는 국가보훈 기업체는 기업체 나름대로, 또한 국민은 국민으로서 대학교육의 수혜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대학교육 재원의 총량규모를 늘려서 국립과 사립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서 재정지원의 행태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립대학도 등록금 인상으로만 부족한 재원을 조

조하는 생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등록금 인상이 이렇게 황폐해진 것인지를 대학 구성원에게 공개하여 이해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때문에 대학의 예산·결산은 공개하여 학생들의 의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나라는 국가정책의 시대에 참여 해야 한다. 청년의 지식, 무한한 두뇌가 국가정책을 높이는 지식정보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좋은 과학, 바로 선 대외의 나랑발전의 원동력이다. 정부는 이를 나라를 만든다. 정부는 이들을 이끌고 기업은 기업인으로 국민은 국민으로서 지식정보사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대학이 바로 우리 나라가 바로 선다.

이영수 (경기대 교수·교육학)

김단시론
(법대교수·법학)

1. 강요된 침묵의 시대
우리는 지난 한 세대에만 너무나 아관적인 권력에 시달려왔다. 한 줄도 안되는 정치권력의 권력을 채우기 위하여 치른 댓가는 너무나도 엄청났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울고 그 울음의 기운이 무너져버렸다. 아직도 울고 있는 울음은 자치된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을 학대하고 개인적으로 치욕하는 것을 배반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국민을 증명했다. 그들은 왕복이든 국민은 그들을 증명했다. 건전한 상식은 유린되고,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말았다. 상한선 안으로 놓고 색이 들어가 30년의 군부담을 학부모에게만 그 짐을 지운다면 그것은 대단한 모순인 셈이다.

다만, 국가는 국가보훈 기업체는 기업체 나름대로, 또한 국민은 국민으로서 대학교육의 수혜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대학교육 재원의 총량규모를 늘려서 국립과 사립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서 재정지원의 행태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립대학도 등록금 인상으로만 부족한 재원을 조

조하는 생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등록금 인상이 이렇게 황폐해진 것인지를 대학 구성원에게 공개하여 이해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때문에 대학의 예산·결산은 공개하여 학생들의 의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나라는 국가정책의 시대에 참여 해야 한다. 청년의 지식, 무한한 두뇌가 국가정책을 높이는 지식정보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좋은 과학, 바로 선 대외의 나랑발전의 원동력이다. 정부는 이를 나라를 만든다. 정부는 이들을 이끌고 기업은 기업인으로 국민은 국민으로서 지식정보사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대학이 바로 우리 나라가 바로 선다.

이영수 (경기대 교수·교육학)



김단시론

김성태 (법대교수·법학)

1. 강요된 침묵의 시대
우리는 지난 한 세대에만 너무나 아관적인 권력에 시달려왔다. 한 줄도 안되는 정치권력의 권력을 채우기 위하여 치른 댓가는 너무나도 엄청났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울고 그 울음의 기운이 무너져버렸다. 아직도 울고 있는 울음은 자치된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을 학대하고 개인적으로 치욕하는 것을 배반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국민을 증명했다. 그들은 왕복이든 국민은 그들을 증명했다. 건전한 상식은 유린되고,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말았다. 상한선 안으로 놓고 색이 들어가 30년의 군부담을 학부모에게만 그 짐을 지운다면 그것은 대단한 모순인 셈이다.

다만, 국가는 국가보훈 기업체는 기업체 나름대로, 또한 국민은 국민으로서 대학교육의 수혜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대학교육 재원의 총량규모를 늘려서 국립과 사립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서 재정지원의 행태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립대학도 등록금 인상으로만 부족한 재원을 조

조하는 생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등록금 인상이 이렇게 황폐해진 것인지를 대학 구성원에게 공개하여 이해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때문에 대학의 예산·결산은 공개하여 학생들의 의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나라는 국가정책의 시대에 참여 해야 한다. 청년의 지식, 무한한 두뇌가 국가정책을 높이는 지식정보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좋은 과학, 바로 선 대외의 나랑발전의 원동력이다. 정부는 이를 나라를 만든다. 정부는 이들을 이끌고 기업은 기업인으로 국민은 국민으로서 지식정보사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대학이 바로 우리 나라가 바로 선다.

이영수 (경기대 교수·교육학)

1. 강요된 침묵의 시대
우리는 지난 한 세대에만 너무나 아관적인 권력에 시달려왔다. 한 줄도 안되는 정치권력의 권력을 채우기 위하여 치른 댓가는 너무나도 엄청났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울고 그 울음의 기운이 무너져버렸다. 아직도 울고 있는 울음은 자치된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을 학대하고 개인적으로 치욕하는 것을 배반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국민을 증명했다. 그들은 왕복이든 국민은 그들을 증명했다. 건전한 상식은 유린되고,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말았다. 상한선 안으로 놓고 색이 들어가 30년의 군부담을 학부모에게만 그 짐을 지운다면 그것은 대단한 모순인 셈이다.

다만, 국가는 국가보훈 기업체는 기업체 나름대로, 또한 국민은 국민으로서 대학교육의 수혜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대학교육 재원의 총량규모를 늘려서 국립과 사립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서 재정지원의 행태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립대학도 등록금 인상으로만 부족한 재원을 조

조하는 생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등록금 인상이 이렇게 황폐해진 것인지를 대학 구성원에게 공개하여 이해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때문에 대학의 예산·결산은 공개하여 학생들의 의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나라는 국가정책의 시대에 참여 해야 한다. 청년의 지식, 무한한 두뇌가 국가정책을 높이는 지식정보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좋은 과학, 바로 선 대외의 나랑발전의 원동력이다. 정부는 이를 나라를 만든다. 정부는 이들을 이끌고 기업은 기업인으로 국민은 국민으로서 지식정보사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대학이 바로 우리 나라가 바로 선다.

이영수 (경기대 교수·교육학)

1. 강요된 침묵의 시대
우리는 지난 한 세대에만 너무나 아관적인 권력에 시달려왔다. 한 줄도 안되는 정치권력의 권력을 채우기 위하여 치른 댓가는 너무나도 엄청났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울고 그 울음의 기운이 무너져버렸다. 아직도 울고 있는 울음은 자치된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을 학대하고 개인적으로 치욕하는 것을 배반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국민을 증명했다. 그들은 왕복이든 국민은 그들을 증명했다. 건전한 상식은 유린되고,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말았다. 상한선 안으로 놓고 색이 들어가 30년의 군부담을 학부모에게만 그 짐을 지운다면 그것은 대단한 모순인 셈이다.

다만, 국가는 국가보훈 기업체는 기업체 나름대로, 또한 국민은 국민으로서 대학교육의 수혜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대학교육 재원의 총량규모를 늘려서 국립과 사립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서 재정지원의 행태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립대학도 등록금 인상으로만 부족한 재원을 조

조하는 생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등록금 인상이 이렇게 황폐해진 것인지를 대학 구성원에게 공개하여 이해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때문에 대학의 예산·결산은 공개하여 학생들의 의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나라는 국가정책의 시대에 참여 해야 한다. 청년의 지식, 무한한 두뇌가 국가정책을 높이는 지식정보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좋은 과학, 바로 선 대외의 나랑발전의 원동력이다. 정부는 이를 나라를 만든다. 정부는 이들을 이끌고 기업은 기업인으로 국민은 국민으로서 지식정보사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대학이 바로 우리 나라가 바로 선다.

이영수 (경기대 교수·교육학)

법인, 재정관리·지원의 본래기능 되찾아야

교수 수혜자로서 국가·기업의 책임분담 필요

이것이 본래의 재산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대한언업 준비의 대부분이 학생의 등록비에 의존하는 입학이고 또한 조기에 투자한 재산권의 행사는 그동안 학교법인이 하고 설립자로서 누려야 할 명예와 권한으로 이미 상회하고도 남는다.

또한 오늘날 대학의 부경과 비리가 비록 대학의 법인이 아니라 교수에게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행하여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행하여서는 당위를 찾게 된다.

2. 사립학교법의 실패와 그 문제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는 법원실천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립학교법의 논의를 해 놓을 수가 없다.

세계사의 대 진전이 자유, 자치, 자율에 달려 있다고 하는 때에 교육에 대한 기대는 의욕이 되고 무한하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의 행하여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행하여서는 당위를 찾게 된다.

그럼에도 1990년 3월 제14회 임시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에 권리가 되고 학자인 의무가 되고 있다.

이것이 본래의 재산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대한언업 준비의 대부분이 학생의 등록비에 의존하는 입학이고 또한 조기에 투자한 재산권의 행사는 그동안 학교법인이 하고 설립자로서 누려야 할 명예와 권한으로 이미 상회하고도 남는다.

또한 오늘날 대학의 부경과 비리가 비록 대학의 법인이 아니라 교수에게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행하여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행하여서는 당위를 찾게 된다.

2. 사립학교법의 실패와 그 문제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는 법원실천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립학교법의 논의를 해 놓을 수가 없다.

세계사의 대 진전이 자유, 자치, 자율에 달려 있다고 하는 때에 교육에 대한 기대는 의욕이 되고 무한하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의 행하여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행하여서는 당위를 찾게 된다.

그럼에도 1990년 3월 제14회 임시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에 권리가 되고 학자인 의무가 되고 있다.

'위대한 반대자들'과 사회

당하지 않은 것이 기적일 뿐이다. 최근의 거대한 임시부경은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화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준다. 국민으로서의 참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압축사이다.

II. 새 아침을 맞는 자세
이제 이념과 문명사회의 깃발을 내걸고 김일성정부가 들어왔다. 그러나 구시대의 상처는 너무나 깊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보를 지정한다.

우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정결을 가져야 한다. 아무튼 그 원인을 설명할 때 '남침'으로 매를 붙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남침'은 '남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남침'은 '남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남침'은 '남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함께 있어서 우리 사회의 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제에 관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립학교법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 모두'의 문제에

강을 하였다고 해서 혼란을 줄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마화된 여경은 더더욱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모두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II. 새 아침을 맞는 자세
이제 이념과 문명사회의 깃발을 내걸고 김일성정부가 들어왔다. 그러나 구시대의 상처는 너무나 깊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보를 지정한다.

우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정결을 가져야 한다. 아무튼 그 원인을 설명할 때 '남침'으로 매를 붙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남침'은 '남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남침'은 '남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함께 있어서 우리 사회의 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제에 관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립학교법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 모두'의 문제에

부담 남는데는 금서이었다는 아이다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위대한 사상은 언제나 대다수이다. 현재의 모든 정절도 저승에는 소수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역사는 소수의 역사이다.

V. 난지도에 버려지는 소수성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함께 있어서 우리 사회의 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제에 관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립학교법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 모두'의 문제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함께 있어서 우리 사회의 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제에 관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립학교법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 모두'의 문제에

Advertisement for Samsung 64MD RAM. Text: "가로 1cm, 세로 2cm 의 작은 칩 속에 우리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Includes image of RAM chip and Samsung logo.

